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조 성 회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전진한 발전과 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도된 사회적학적 연구가 생각된다. 특히, 다양한 가족의 삶 중에서 “주말부부”를 구체적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말부부라는 표현이 가지는 생활근거지의 문제를 주 연구의제로 줄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연구방법에서는 개념적 분석보다는 실증분석을 통한 정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가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례되는 무수한 사회문화적인 충격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 오히려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 아이러니한 생활 속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기까지 한다.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요구는 경제활동과 맞물려 아주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자료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은 단순히 직업을 통해 사회참여자 자비생존의 기회를 갖기 위한 해석에 앞서서 "맞벌이 부부"라는 시대에서 점점 생활해 있는 주거의 사실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 방에 따른 역할구조가 평등사회라는 사회정의적 구조에 우선하여 형상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말부부”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특히 맞벌이부부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한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볼 것인지, 또는 복 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각의 정리를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의 대상으로, 그러나서 심층 면접에서의 면접내용을 정리하는 둘 짝의 배경이 될 뿐 아니라,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정적 연구에 따른 효과와 할 수 있는 결과의 연계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가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결과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대상이 된 피검자들의 신청이,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직업영역으로 한정되고,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과 같은 표집문제에 의해 실제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을 놓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조사 결과의 절차 분석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의 정리가 전반적으로 왜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지어졌으므로써 심층적인 면을 찾으려는 연구의 기본 취지가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